

‘나주 삼색유산놀이’ 국립중앙박물관 무대 오른다

나주시립국악단, 26일 박물관 문화 향연 초청 공연

전라남도 나주시 고유의 세시풍속이자 문화유산인 ‘삼색유산놀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향연 무대에 오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4월 26일 오후 3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나주 삼색유산놀이’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삼색유산놀이는 조선시대 나주읍성에 살던 부녀자들이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음식을 나누는 화합의 축제였다.

농번기를 앞두고 음력 4월 봄이 되면 산으로 봄놀이를 가는데 이를 ‘산놀이’ 또는 ‘유산(遊山)’이라고 불렀다. 남자들은 시회를 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와 민요를 부르며 하루를 즐겼다고 전해져온다.

삼색유산놀이는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도 놀이를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했던 나주만의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나주시립국악단은 삼색유산놀이를 현대적 감각을 입힌 마당극 형식의 공연으로 각색해 나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선보여왔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국악 선율과 생동감 넘치는 연기, 관객과 소통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나주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호 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나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며 “삼



색유산놀이가 전통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나주 삼색유산놀이 공연 관람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대표하

는 문화 공연인 삼색유산놀이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며 “나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강진아트홀에서 즐기는 100만 베스트셀러 ‘강아지똥’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 지원사업 작품 4편 유치

강아지똥 24주년 민들레포토존, 클레이공작소 등 체험행사도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연극 ‘강아지똥’을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상연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아지똥’은 1969년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그림동화이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국내 창작 그림책 최초로 100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이다.

어린이 연극의 명가 ‘극단 모시는 사람들’은 최초로 이 작품을 연극으로 제작, 가치 없는 존재로 무시당하다가 민들레의 거품이 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피어나는 ‘강아지똥’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2001년 동송홀에서 처음 공연한 강아지똥은 올해 24주년을 맞이했다. 6개국(한국, 일본, 영국, 케냐, 싱가포르, 인도), 국내외의 175개 극장에서 공연되며 강아지똥은 동화를 사랑하는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특히 2024년 제77회 영국 에딘버러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아츠어워즈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어린이연극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렸다. 한국적 색채와 정서를 담은 무대와 의상, 음악 등 공연은 흡입력 있는 연극으로 많은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강아지똥’에서 돌담 무대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골목길의 세계와 동화책에서 상상 속으로만 만나던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선정작인 어린이 연극 ‘강아지똥’에서는 민들레 포토존 및 흰둥이, 참새, 강아지똥 등 캐릭터 장신대로 공연장 로비가 아름답게 꾸며지며, 고 권정생 선생님의 대역배우 조준형과 사진 촬영, 클레이 공작소 등 다양한 로비 행사를 마련해 공연장을 방문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한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옴니버스 인형극’으로 어린이날 특별 선물

5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5시 야외공연장 달빛마당에서 공연 개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오는 5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5시에 야외공연장 달빛마당에서 2025 어린이날 특별공연 ‘옴니버스 인형극’을 선보인다.

매년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진행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옴니버스 인형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인형이 춤을 추고, 줄을 타고, 버니를 돌리고,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인형 조종술을 전통연희를 전공한 전문

예인들이 선보이며, 그들의 움직임과 섬세한 연주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주와 연희로 즐겁게 한바탕 즐기는 무대이다.

출연 단체인 ‘연희공방 음마깡깡’은 한국 전통 인형극의 복원과 재현을 목표로 창단되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의 탈미(인형극) 종목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모여 활동 중인 단체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인형 제작과 연출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책 읽는 광양, 평생 독자의 길을 열다”

생애주기 독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잇는 도시’ 실현

『게』와 『이불 속에 쏙』으로, 부모의 따뜻한 포용과 아늑한 잠자리의 경험을 통해 아기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아기 도서회원증은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과 프로그램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책 꾸러미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다음 달 중 가정으로 택배 발송된다.

□ 북스타트, 아이의 성장을 책과 함께 생애 첫 책 꾸러미를 받은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광양시는 성장단계에 맞춰 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이며, 13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발달 시기별로 그림책이 든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단계별 선정 도서는 ▲1단계(13~18개월): 『누가 숨었나?』/『우리 나가 놀자』 ▲2단계(19~35개월): 『아니야? 아니야!』 / 『비가 오면 우리는』 ▲3단계(36개월~취학 전): 『감자 감자 뽕』 / 『아빠와 호랑이 버스』 ▲4단계(초등 1학년): 『이 선을 넘

지 말아줄래?』/『끼꼬 할아버지의 비밀』이다.

시는 사업을 도입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800명의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선물했으며, 올해는 총 6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이다.

꾸러미는 시립도서관 4곳(희망, 중마, 용강, 금호)에서 선착순 배부된다. 신청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 함께하는 책 놀이, 함께 자라는 시간

광양시는 ‘책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돕고, 책을 매개로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장아장 책 놀이터(12~35개월) ▲꿈꾸는 책 놀이터(36~60개월) ▲북스타트 책날개(초등 1학년) 총 3개로,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 활동, 미술, 음악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5월부

2025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서비스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광양시가 책 꾸러미를 선물합니다.“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세요”

- 지원대상 13개월 ~ 초등학교 1학년, 60세이상(광양시 거주)
- 배부시기 2025. 4. 12.(토) ~ 소년 시가지(희망·용강·금호도서관)
- 지원내용 책 꾸러미(그림책 2권, 가방, 가이드북)
- 필요서류 가입신청서, 발급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책 꾸러미

북스타트(13개월)	북스타트(19~35개월)	북스타트(초등 1학년)
13~18개월	19~35개월	36개월 ~ 취학전

북스타트 책날개(초등)	북스타트 사나이
초등학교 1학년	60세 이상

광양희망도서관 T. 797-3873

터 10월까지이며, 희망도서관에서 상·하반기로 나뉘어 3개 강좌, 총 28회를 운영한다.

한편, 이번 4월에는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초등북스타트 ‘찾아가는 책날개’ 행사도 마련돼 있다. 시는 4월 15일에 옥곡초와 진월초를 방문하고 4월 17일에는 동초와 서초를 찾아 책 꾸러미를 나눠줄 계획이다. 아울러 배부한 도서를 활용해 그림책 읽어주기, 동극 공연, 책 놀이 등의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국민의 삶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